[슬픔의 철학-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김진영 선생님 4강 강의록]

바르트가 쓰는 바르트

폐허에 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은 폐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의 책상은 어지럽고 산만하지만, 시험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의 주체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면서 일종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폭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건 파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랑의 주체가 원한 건 궁극적으로 파멸이 아닌 그 '대상'이다. 히스테리에 빠져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처럼 요한의 목을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광기다. 광기와 사랑은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로메를 끔찍하게 여기면서도 그녀를 외면하지 못한다. 살로메는 처음부터 미쳐버린 걸까? 그녀는 냉정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녀는 파괴되었다. 애착이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요한은 이제 그녀에게 있지만 그녀에게 없다.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깊숙이, 그녀 주변의 황금으로 된 모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녀에게 이제 폐허나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랑의 주체는 살로메가 되지 않기 위해 또렷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허나 그 주변은 폐허, 똑같은 폐허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찾는 대상만이 눈에 보일 뿐이다. 바르트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애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는다. 그에게 어머니는 초자아이면서 바르트, 자아 자체였다. 어머니가 죽은 뒤 바르트는 그림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피터팬이 그림자를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가 피터팬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는 '넋이 나간 채'로 주변을 둘러본다. 주변은 폐허다. 하지만 텅 빈 폐허만은 아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폭풍에 의해 파멸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을 찾기 위해서다.

아내에게 바치는 어느 생물학자의 고별사

셔윈 스티븐스

천국을 믿지 마오, 지옥도 믿지 마오.

당신은 죽는 거요. 그것뿐이오. 안녕히. 잘 가오.

영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물론 그렇겠지.

죽음은 부패이고 거름이고

가차 없이 썩어 가는 거요. 부패, 부패.

당신이 동물에서 식물로 되돌아가면

물론 나는 비탄에 잠기겠지.

그러나 죽어 가는 아내여,

슬픔은 이제껏 한 번도

삶을 연장해 준 적이 없었소.

죽음의 손길이 닿은 몸에서

단 한 번의 숨도 가외로 이끌어낸 적이 없었소.

짐 크레이스의 '그리고 죽음' 서문

슬픔은 억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슬픔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한 사람의 생을 일축한다는 건 사실 그 자신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거나 묘한 회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상을 보면 기호화하고 싶어한다. 대상과 육체적 교감을 나누는 순간 기호가

생성된다. 하지만 기호는 태어났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혀 다른 것인양 존재하게 된다. 사랑할 때 쓰는 러브레터가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것인지는 그 기호와 육체성의 관계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수많은 미사여구들, 당신의 눈동자는 제비꽃 같다느니 하는 말들은 사실 계속 읽다 보면 어떠한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 문구를 그대로 따다가 다른 사람에게 써서 보내도 될 정도다 싶다. 허나 육체의 언어로 말하는 순간, 환유적인 편지는 평생토록 간직하게 된다. 둘만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은유의 언어들은 제비꽃이 아름답다는 상징적 판단, 코드에 종속되어 있다. 연인은 생존을 중시하는 코드 체계를 파괴하는 탈코드적 존재들이다. 허나 러브레터가 코드로 환원된다면, 파괴한 줄 알았는데 파괴하지 못했던 걸 깨닫는다면 그건 얼마나 씁쓸한 일인가. 수많은 연인들이 헤어지고 나서 깨닫는 건 그들이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으며 지금도 그 사람을 잊기 위해, 혹은 다시 잡기 위해 매뉴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프루스트의 할머니의 임종 순간이 아름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만약 할머니의 임종 순간을 철저하게 '현실 코드'로 받아들였다면 과연 프루스트에게 할머니의 죽음이 그렇게 큰 사건이었으며, 후에 할머니의 귀환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글쓰기는 코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코드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그 결을 따라 흘러가면서 그 결을 거슬러 파괴할 힘을 찾는다.

백지 ; 백치

그러나 애도는 끊임없이 그 '부재의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분명 맺어져 있었지만 어느 순간 끊어졌다. 바르트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바르트였다. 어머니의 현전이 사라진 이후 그는 끊임없이 '지워질까봐' 두려워한다. 이전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쓰여 있던 자리는 지워져 버렸다. 그렇다면 그 또한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하지만 '맺어져 있었던 장소'는 공허한 부재만이 아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 또한 사랑이고, 계속 사랑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부른다'. 그 부름은 '기호'를 낳는다. 바르트는 기호를 계속 생산해 낸다. 어머니가 완전히 부재한다는 그 슬픔을 '부재의 장소'로 만든다. 부재의 장소는 동시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느낀 고통을-어머니라는 존재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순간 '어머니'가 사라지게 된다-함께 끌어당긴다. 기호는 이제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밀착된다. 결국 부재의 장소는 백지이되 '꽉 찬 백지'가 된다. 바르트는 미쉬낀 공작처럼 불가능성 앞에서도 '깨끗이 돌아서는 법' 없이, 한없이 당황해 하며 그 불가능성을 두드리고

횡설수설하는 또다른 '백치'가 되어버린다. 된다. 되고자 한다. 그게 그의 애도이므로.